

10월 '남원국제드론제전' 준비 착착

시, 부서별 추진 상황 보고회 홍보·시설 점검·교통 등 논의

남원시가 '2024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상황 점검에 나섰다.

남원시는 최근 최경식 시장과 정내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0월3일-6일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펼쳐지는 '2024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대회의 제1차 추진상황보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열렸던 '종합추진계획보고회'의 내용을 발전시켜 행사 전반의 흐름과 운영에 대한 부서별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행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보고회 관련 사업부서별로 다양한 의견을 내렸고 행사지원과 홍보, 시설점검, 숙식지원, 의료지원, 안전관리, 교통대책 등 분야별 사항들을 점검한 뒤 발전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이번 부서별 추진 상황 보고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부서간 소통을 통해 상황점검, 발전방안 제시, 문제점 공유 등에 나서면서 빈틈없는 대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2024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은 ▲2024 국제드론·로봇 레저스포츠대회 ▲2024 남원 드론



최경식 남원시장이 지난 19일 남원시청에서 열린 '2024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제1차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철저한 대회 준비를 강조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로봇 전시 체험 & 컨퍼런스 ▲2024 남원 드론공연체험 페스티벌 ▲2024 남원 글로벌 푸드 페스티벌 등 네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또 ▲드론·로봇 체험 ▲멀티 드론쇼 ▲개막축하공연 ▲유명 유튜버 강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FAI 국제드론레이싱 마스

터즈, 남원 FIRA 아시아오픈 등 국제 레저스포츠 대회를 포함해 남원국제드론제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부서별 배정된 분야별 업무를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남원의 대표 가을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 '바이오테스팅센터' 이달 착공

190억원 투입 내년 8월 완공...2026년 하반기 운영 목표

남원시가 지역 내 바이오산업 활성화와 연구기반 확보를 위한 '남원시 바이오테스팅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남원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총사업비 190억원이 투입되는 '남원시 바이오테스팅센터' 건립사업이 이달부터 시작돼 오는 2025년 8월 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건립 완료 후 2025년 12월까지의 장비를 구축하고 2026년 상반기 식약처 인증을 거쳐 같은 해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천연물 화장품시험검사상센터로 운영될 이곳은 건축면적 1080㎡, 연면적 4066㎡ 규모의 지상 4층 건물로 지어진다.

1층에는 바이오 홍보관과 기업 회의실, 2층에는 화장품 피부인상시험 시설, 3층에는 화장품 등 바이오 시험검사 및 인증시설, 4층에는 바이오 기업 입주 및 공동장비 이용실 등을 갖춘 전문적인 바이오 시험연구 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향후 센터 운영이 개시되면 화장품 시험검사와 피부인상을 원스탑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확보돼 전북·광주·전남·경남 지역 기업들의 수요 충족과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남원시가 건립사업을 본격화한 '바이오테스팅센터' 조감도.

한편 센터건립은 남원시 출연기관인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2014년 설립 이래 우수화장품제조시설, 천연물화장품원료제조시설, 코스메틱비즈센터(지식산업센터) 등 다수의 인프라 시설을 건립한 이력이 있는 바이오 분야 전문 연구·지원기관이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 전입 대학생 '주거비' 최대 200만원

6개월 이상 거주자 4년간...26일~9월 20일 신청

정읍시가 전입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정읍시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올해 하반기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지역 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전입 대학생들에게 연 2회에 걸쳐 학기별 25만원씩 총 50만원의 기숙사비나 월세를 지원한다.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4년 동안 총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정읍시로 전입해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정읍 소재 대학교(원) 재학생이다. 휴학생 또는 유사한 주거비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의 공고를 참고해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진행하면 된다.

전입 대학생은 주거비용 지원 외에도 '전입 학생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기준과 신청 방법은 주거비용 지원사업과 동일하다. 전입 후 6개월 경과 시 15만원, 이후 6개월마다 5만원씩 총 3년간 최대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전입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청년 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들이 정읍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지역 발전의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주거비용 지원사업이 청년들이 정읍에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 추석 앞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 점검

정읍시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 내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정읍시는 이달 28일까지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축산물 보관 냉장·냉동기준 준수 여부 ▲축산물 및 영업장 위생 적합 여부 ▲보존·유통 기준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지역 내 축산물 제조·유통·판매업소

398개소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29개소다.

위생관리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부적합 제품은 즉시 회수·폐기될 예정이다.

신기한 정읍시 축산과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제공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 아기 황새 이름은

명칭 공모 결과 공개

고창군에서 자연부화로 태어난 황새 4마리의 이름이 '노을·푸름·오순·도순'으로 확정됐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21일 '2024년 고창 아기 황새 4마리 이름을 지어주세요'의 명칭 공모 결과를 공개했다.

명칭공모는 지난 4월에 태어난 황새 4마리의 이름을 고창과 연관된 단어로 누구나 쉽게 부르길 기억할 수 있도록, 참신하고 친근한 명칭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황새 4마리는 가락지 번호 A03(부, 균형이)과 A77(모, 지황이) 사이에서 태어났다. 지난해 호남권 최초 황새 자연부화에 성공한 찬란이·행복이·활력이(G66-68)에 이어 두 번째 성공사례다. 많은 군민의 참여로 25건의 공모작이 접수됐



전북자치도 고창군에서 자연부화로 태어난 황새 4마리의 이름이 '노을·푸름·오순·도순'으로 확정됐다. <고창군 제공>

다. 1등은 성용제 씨의 '노을·푸름·오순·도순(K27-30)'이 선정됐다.

새끼 황새 4마리의 이름은 아름다운 노을, 푸른 바다, 산과 함께 오순도순 정답과 의롭게 지내는 고창 사람들을 비유하는 의미를 담았다.

한편, 천연기념물인 황새는 멸종위기종 1급으로 국내에는 200여 마리의 개체수가 확인되고 있으며 지난해 태어난 찬란·행복·활력이는 서산 인근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 군민 주요 생활물가 공개

고창군이 최근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 내 주요 생활물가 자료를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자료공개는 지역 주민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군은 이를 통해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개되는 생활물가 자료는 ▲고창군 내 주요 대형마트(고창읍, 군계지역 마트) ▲전통시장 ▲

관광지 ▲개인서비스(외식) ▲지방 공공요금 현황 등 다양한 품목의 가격 정보를 포함한다.

자료는 고창군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군민들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물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경제적 소비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